

고향의 강 -용포천-에 얽힌 구비전승

좌 혜 경 (해녀박물관)

1. 들어가는 말
2. 월계 진좌수
3. 금악 본향당 신화
4. 용포천을 감싸던 소리
5. 결어

1. 들어가는 말

제주도의 구비전승은 전도적으로 유포되어 구전되는 유형과 지역별로 특이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한림읍 명월 지역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전해지는 월계 진좌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의술이 능통한 인물이 자연적인 이치와 원리로서 도민들을 구원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전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풍수사 고전적에 대한 전설, 장사형 인물인 ‘배가 큰 강당장’, ‘장사 즈망이’와 같은 풍수형과 장사형의 유사 인물 전설들도 전도적인 전승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전해지는 막산이, 새샘이와 정운디와 같은 배고픈 장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가 큰 강당장은 이 지역민들이 만들어 낸 인물이다.

민요로는 조농사를 위해서 밭을 밟으면서 불렀던 밭밟는 소리와 더불어, 길고 짧은 김매는 소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상례 의례 시 불렀던 장례의식요 중 행상을 운상할 때 부르는 상여소리와 무덤의 봉분을 쌓고 땅을 다지는 소리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용포천 하류의 전경>

2. 월계 진좌수(月溪秦座首)

용포천은 월계교를 지나 명월리 지경에서는 ‘월계천’으로 종종 불린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생수가 평평 솟아올라 용천수의 수량이 풍부하다. 또한 이러한 물의 용출 양 만큼이나 명월 출신 월계(月溪) 진좌수에 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구전되고 있다. 그는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한림읍 명월리 출신이며, 본명은 진국태(秦國泰)이며 호는 월계(月溪)다. 좌수(座首)의 벼슬을 했다고 해서 진좌수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최고의 신비한 명의에 관한 이 인물전설은 현재도 인물전승 관련 인간상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 문학물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전승보다는 창조적인 문학적인 행위가 더욱 많아서 역사 서술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변형 국면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한편 명월리의 월계 진좌수 전설은 용포천을 문화 콘텐츠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적 요소로 보인다. 지금도 이 지역 전승자들의 머리에 각인되고 있어, 여타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부조화되고 친착되며 재생되어지고 있다.

서사문학은 작품의 외적 자아(청자)의 개입에 의한 작품 내적 자아(주인공)와, 작품 내적 세계와의 대결을 그린다. 특히 인물 전설인 경우 작품 외적 자아의 상승 충격과 외적 자아의 하강 충격으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곧 작품 내적 자아가 좌절을 겪고 한계에 부딪히도록 하며, 전설은 세계우위에 입각 철저히 한 인물이 패배

되는데¹⁾, 이 월계 진좌수 모티프는 인물의 패배와는 관계없이 사건의 완결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월계 진좌수 인물 전설 모티브 중 다섯 각편에 나타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입부분은 월계 진좌수가 구슬을 가지고 여우 혹은 예쁜 처녀, 여우에서 변신한 미녀와 희롱하는 주체의 행위로 시작된다.

1-1 여우를 만나 구슬을 갖고 희롱하다가 구슬을 삼킴 (1, 2유형)

1-2 예쁜 처녀를 만나 구슬을 갖고 놀게 됨(3, 4유형)

1-3 여우에서 변신한 미녀가 구슬을 물고 와 진좌수의 입에 물림 (5유형)

2- 전개 부분에서 월계 진좌수가 명의를 된 까닭은 하늘, 땅, 사람을 쳐다보라는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구슬을 삼킨 후 사람 만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천문, 지리에는 능통하지 못하고 명의를 되는 결과를 낳는다.

2-1 구슬을 삼켜 명의를 됨 (1,2 유형)

2-2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사람만을 쳐다보아 명의를 됨 (3,4,5유형)

3- 의술행위와 관련하여 전승자들의 다양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모티프와 관련된 다양한 각편들이 고정적으로 전승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1 임산부 심장을 켜 뱃속의 아기에게 침을 놓아 산모를 살려냄 (유형1,3)

3-2 여름날 해산을 못한 임산부에게 문기둥 찢은 물을 먹이도록 함 (유형1)

3-3 죽어가는 노파에게 두개골에 용이 빠져있는 물을 마시도록 함 (유형2,3,4)

3-4 목사의 목에 걸린 가시를 화가 나게 해서 활김에 빠져나오도록 하여 좌수 벼슬을 얻음 (유형4)

3-5 충청도 명의를 일 년이나 걸려서 치료하는 것을 진좌수는 바로 고침 (유형4)

3-6 아침의 산모에게는 집 문의 걸쇠를 풀라고 조언 함 (유형5)

3-7 죽은 사람으로 가장한 일꾼을 살려서 말을 시켰는데 그는 이미 죽어 있었음 (유형4)

3-8 남편의 병을 치료하러 오는 아낙을 겁탈한 남자를 오행으로 죽게 함(유형4)

4- 타인에 의한 의술실험 및 의술행위 실패는 유사한 의술 행위를 모방하여 처방 하한 결과 실패에 대해 대가를 치름.

4-1 겨울에 문지방 찢은 물을 먹도록 임산부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환자를 죽게 한 부인을 죽이거나 병어리가 되도록 함 (유형1,4)

4-2 지아비를 돼지털로 찢러 죽인 지어미를 찾아 벌함 (유형2)

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서울:지식산업사, 1977, 91-104 쪽.

4-3 진좌수를 속이려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아이를 죽인 것을 발견하고 꾸중함 (유형2)

5- 진좌수의 영웅성을 강조한 국면으로 죽은 후 혹은 죽기 전에 미리 처방하여 두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

5-1 진좌수의 영험을 믿고 사람들이 구완을 구해 무덤을 찾음 (유형2)

5-2 진좌수 누님이 아파서 구완이 어렵자 꿈속에서 약초를 지시해주어서 치료함 (유형4)

5-3 진좌수는 이미 죽기 전에 예언하여 중국천자에게 처방을 다하여 줌 (유형4)



<월계교의 전경>

관련된 각 유형들의 경계를 소개하면²⁾

○ 유형1

서당에 나갈 때마다 자주 변신한 여우를 만나 구슬을 갖고 서로 희롱하던 진좌수는 서당 선생의 조언에 따라 그 구슬을 삼켰다.(1-1) 그리하여 의술에 능통하게 되었다.(2-1) 어느 임산부가 다 죽어가는데, 진좌수가 침을 주자 곧 살아났다.(3-1)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장(臟)을 옮겨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또 어느 여름날 해산일이 가까운 임산부가 다 죽게 되자, 진좌수는 문기둥을 씻은 물을 먹이도록 하였다. (3-2) 여름 때에는 모든 문을 열어야 하므로 이 기운으로 하문(下門)도 열

2) 제주설화집성(濟州說話集成)(1)』(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자료인용.

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겨울날 똑같은 증상의 임산부가 진좌수를 찾았으나, 마침 진좌수는 집에 없었다. 급한 나머지 진좌수 부인이 여름때 그렇게 처방을 내려 살았노라 말해주었다. 그러나 임산부는 죽었다. 이를 안 진좌수는 자기 부인의 입이 산 사람을 죽이게 하였다고 하며 병어리로 만들어버렸다.(4-1) 겨울에는 모든 문을 닫아야 하는 때이므로 문을 씻은 문을 물을 먹이면 하문(下門)도 더 굳게 닫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 유형2

월계 진좌수는 어릴 때 여우와 함께 놀다가 여우가 입에 물려주는 구슬을 삼켜버렸다. (1-1)그 덕분에 월계 진좌수는 사람에게 관한 일, 특히 병을 치료하는 일에 대해서는 능통하게 되었다.(2-1) 어느날, 다 죽어가는 노파가 찾아왔는데, 사람의 두개골에 용이 빠져 있는 물을 마시도록 처방하여 주었다.(3-3) 마침 돌아가는 길목 한편에 개구리가 들어있는 두개골이 있었고, 그 물을 먹으니 곧 병이 나왔다. 월계 진좌수가 다른 고을을 가다가 우연히 초상집에 들르게 되었다. 그 집의 지아버가 죽었으나 그 지어미는 슬픈 척하고 거짓 울고 있었다. 월계 진좌수가 그 지아버 시신을 들여다보니, 그 지어미가 일부러 돼지털을 갖고 지아버의 염통을 찢러 죽였던 것이었다. 이에 곧 간사스런 지어미를 벌하였다.(4-2) 월계 진좌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웃동네 아이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한 아이더러 거짓 죽은 척하며 뒤로 누워있으라고 했다. 다른 아이들이 월계 진좌수를 찾아가 한 아이가 아파서 죽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월계 진좌수는 화를 벌컥 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장난하다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욕을 했다. 아이들이 되돌아 가 보니 사실 그 아이는 죽어 있었다.(4-3) 이런 그의 영험 때문에 그가 죽어버린 뒤에도 병이 든 사람은 그의 무덤을 찾아가 구환을 빈다. (5-1)

○ 유형3

월계 진좌수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되면 도중에 예쁜 처녀를 만나게 되어 함께 구슬을 갖고 놀게 되는데,(1-2) 그렇게 되자 월계 진좌수는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 간다. 이 사실을 안 훈장은 월계 진좌수에게 구슬을 갖고 놀 때에 구슬을 삼켜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게 한다. 그러나 구슬을 삼켜 놓고서는 급한 김에 사람만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만 통달하는 명의(名醫)가 된다.(2-2)

한번은 정의고을에서 앓는 어머니를 업고 온 사람에게 해골에 용 두개 빠진 물을 먹이면 병이 낫는다고 처방하는데 그들이 집으로 가는 도중 해골에 지렁이 빠진 물을 먹고 살아나게 한다. (3-3)그런가 하면 해산하던 산모를 침을 놓아서 살려내는데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숨통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손에 침을 놓아 산모를 살려낸다는 얘기다.(3-2)

○ 유형4

월계 진좌수가 금릉에 한문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데, 한문선생 백선생이 보니 진좌수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까닭을 물은즉 길가에서 미인이 나와 구슬을 자기 입과 진좌수의 입에 번갈아 물린다는 것이었다.(1-2) 그러자 백선생은 구슬이 월계 진좌수의 입에 물려졌을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도록 한다. 그러나 막상 구슬이 진좌수의 입에 왔을 때 하늘과 땅은 볼 수가 없고 사람만 보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에게만 정통하는 명의(名醫)가 된다.(2-2)

제주목사가 도미고기를 먹다 목에 뼈가 걸리게 된다. 그러자 진좌수를 불러 치료 받으려 하는데 진좌수는 제주목사 앞에서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며 목사를 화나게 한다. 제주목사는 화김에 ‘아학’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 목에 걸려 있던 뼈가 나오게 되는데, (3-4)진좌수의 내심을 알게 된 제주목사는 진좌수가 명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좌수(座首)벼슬이 주어졌다 한다.

월계 진좌수에게 아버지의 병을 고치 위해 정의고을에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한라산을 넘어 명월로 온다. 그러나 진좌수는 진찰도 하지 않고 약이 없다고 하면서 이들 부자간을 쫓다시피하며 하면서 사람의 백 년 목은 골 속에 용이 썩은 물을 먹게 되면 낫는다고 한다. 부자간은 실의에 빠진 채 다시 산을 넘어 돌아가게 되는데, 도중 사람의 골같이 생긴 돌 속에 지렁이 빠진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시게 된다.(3-3) 그러자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생각한 아들은 진좌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 다시 진좌수를 찾아온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곳을 지나치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그에 따라 아버지의 병도 나올 수 없게 되는 진좌수의 깊은 속뜻을 일깨워 준다.

월계 진좌수의 의술이 충청도까지 전해지자 충청도 명의 이의사는 진좌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온다. 두 사람은 서로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는데 마침 한 환자가 들어온다. 충청도 이의사는 환자를 진맥하고 일년 걸려 치료할 수 있다 하나 진좌수는 침을 놓아 코로 고름이 나오게 하여 단번에 고치더라는 얘기도 있다.(3-5)

음력 팔월 경 두 일꾼이 목초를 베다보니 저 멀리 월계 진좌수가 백마를 타고 서귀포 쪽으로 가고 있었다. 두 일꾼은 월계 진좌수의 의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중 한 일꾼을 거짓 죽은 채 위장하고, 다른 한 일꾼은 월계 진좌수를 청해온다. 그러나 죽은 사람으로 위장한 일꾼은 이미 뒤로 나자빠질 때 간실이 끊어져 죽게 된 상태였고 월계 진좌수가 침으로 그 간실을 이은 동안의 잠시간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나 침을 빼게 되자 죽더라고 전해진다.(3-7)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대정서 월계 진좌수를 찾아오다 부인네가 겁탈을 당한다. 진좌수를 만난 부인네는 이 사실이 탄로나고, 진좌수는 남편의 병이 낫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겁탈한 남자는 남편 대신 죽게 된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진좌수가 의술만이 아니라 오행(五行)으로도 병을 고쳤다는 말도 전한다. (3-8)

한 부인네가 해산이 잘 안되어서 월계 진좌수를 찾아오나 마침 진좌수는 집에 없을 때였다. 그러자 그 부인이 진좌수가 평소 하던 대로 처방하는데 그것이 잘못되

어 더욱 난산이 된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진좌수가 이 사실을 알고는 해산하는 부인네 집에 달려가 순산이 되도록 돕는데, 결국은 자기 부인의 잘못된 처방을 책망하여 일년간 병어리를 만들기도 했다.(4-1)

월계 진좌수는 누님이 병이 드나 고칠 길이 없게 된다. 그러자 진좌수가 누님에게 현몽하여 나타나 약초를 일러주는데 그 약초를 달여먹으니(5-2) 병이 즉시 낫기도 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천자가 병이 나자 황태자가 찾아오는데 이미 그때는 진좌수가 죽은 후였다. 그러나 이미 죽기 전에 이를 예언한 진좌수는 처방을 다해 두었다는 말도 전해진다.(5-3)

○ 유형5

월계 진좌수가 금릉에 글 읽으러 다닐 때 여우에서 변신(變身)한 미녀가 구슬을 물고 나와서 진좌수의 입에도 물리며 진좌수의 피를 빨아먹었다. (1-3)이 사실을 안 선생은 구슬이 월계 진좌수의 입에 물렸을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도록 해서 그 구슬을 삼키도록 한다. 그러나 막상 구슬이 입에 물려졌을 때는 당황한 나머지 사람만 보고 하늘과 땅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결과 사람에게 대해서는 훌륭한 명의(名醫)가 되나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통달하지 못한다. (2-2)

한번은 해산하게 된 산모가 있었는데 해산이 잘 되질 않아 월계 진좌수에게 그 처방을 받으러 오니 마침 식전이였다. 그때 문의 걸쇠를 풀면 순산이 된다하여 그대로 따랐더니 순산이 되었다. (3-6)그러나 저녁 무렵 해산의 경우에는 걸쇠를 풀어서는 효과가 없고 다른 처방으로 해산시키더라는 얘기다.



3. 금악 본향당 신화

지역의 당본풀이는 그 지역민이 향유하는 대표적인 신화다. 당의 설정을 위해 신의 좌정 경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금악본향당 신화에서는 주인공 역인 본향당신 황서국서와 정좌수 딸의 이야기를 통해 수렵과 농경이 두 문화적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황서국서와 정좌수 딸은 결혼을 통해 ‘동당동좌형식’으로 마을의 당신이 되었으나, 식성의 별거로 부부의 인연을 가르게 된다. 이는 바로 수렵이동생활에서 농경 정착생활로의 전이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좌수 딸은 원래는 수렵신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 ‘회간 한점’으로 부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친이 죽게 된다. 수렵신 황서국서를 만나 정착을 하게 되나, 피 냄새 때문에 수렵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헤어져서 농경신이 되어 그 후손들이 각처에 뻗어나가게 된 것이다. 신화는 마치 송당 본풀이와 비슷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신은 농지를 개간하고 소를 이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하며 육식을 금기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렵 목축의 남신과 농경, 산육의 여신이 부부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의 형성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화개략³⁾

안덕면 동서광리, 한림읍 금악리에는 황서국서라는 당신이 좌정해 있다. 상창하르방 당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과 활쏘기의 경쟁에서 밀려나 온 들판을 헤매던 황서국서는 금악리로 가서 좌정하였다.

황서국서는 정좌수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둘이는 서로 사냥을 같이 하러 다녔는데, 국서가 산 위에서 사슴을 몰면 정좌수가 쏘아서 맞추고, 아래쪽에서 맞추지 못하여 산위로 몰면 황서국서가 쏘아 맞추며 서로 사냥을 즐겼다. 그런데 정좌수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린 딸을 불러 놓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제 잡은 각록의 간이라도 시원 석석하게 먹고 싶구나”

딸은 아차 하면서 “어제 핏감을 썰다가 한 점을 떨어뜨렸는데, 줍지 않아 아마도 다른 짐승들이 다 먹어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자 아버지 정좌수는 실망한 듯 알았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각록의 간은 영약이나 다름없는데, 그만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말았구나, 눈 위에서 각록을 잡는 것은 산신이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 늙은 내가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없구나”하면서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정좌수 딸은 아버지의 시신을 감장한 후 사슴의 고기로라도 꼬지를 해서 제를 올

3) 제주도편,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 자료.

리려고 정좌수가 사냥하던 곳을 발자국을 따라 사슴을 잡으러 산으로 올랐다. 얼마 쯤 올랐을 까 흑심한 눈보라로 인한 추위와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앞은 보이지 않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안돼, 각록을 잡아서 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려야 하는데.....” 딸은 앞에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연기가 나는 곳이 있어서 바라보니 그곳은 황서국서가 거처하는 바위굴인 것이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힐 여유도 없이 황서국서 바로 앞에 쓰러진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자신이 정좌수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자 황서국서는 흔쾌히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동안 정좌수와 사냥하면서 쌓인 옛 정을 딸에게 온전히 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딸과 황서국서는 혼인을 하고 산을 내려와 금악오름 쪽으로 행했다. 그런데 금악오름은 너무 높아서 자손들의 제물 공연을 받기 어려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오름 아래로 좌정하게 된다.

그런데 정좌수 딸은 언제부턴가 사냥을 하는 황서국서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날땀내가 온천지를 진동하고,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하므로 곳곳마다 짐승의 뼈가 있어 상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정좌수 따님은 남편을 두고 자신은 따뜻한 머들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별거를 하며 축일 한집으로 좌정했다. 그동안 국서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아들 딸 송이송이 벌어져서 여러 곳에 좌정을 해 단골들을 보살피는 당신들이 된 것이다.

4. 용포천을 감싸던 소리

제주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좁은 땅을 일궈,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해왔다. 좁은 땅을 일구면서 지었던 농사는 주로 보리, 밀, 팥이나 조 등의 잡곡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척박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밭을 밟고, 콩밭이나 조밭의 김매기와 가을이 되어 곡식을 타작하는 일련의 농사행위는 엄청난 고역이었다. 도민들에게 노래는 부치는 힘을 돋우거나 기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화산회토의 자연환경적인 조건에 따른 노동과 함께 불려진 원시 농업 노동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래들은 일상적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불려지는 삶의 소리, 특히 노동의 문화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그 가치가 크다.

제주도의 농업 노동요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농사 행위와 동반되어 불려지고 있다. 농사를 위한 농업 노동요는 농사행위와 함께 불려지고 있는데, 따비질 소리, 밭가는 소리, 흙덩이 바수는 곱베질 소리, 씨레질 소리, 보리걸름 불리는 소리, 밭 불리는 소리, 검질 때는 소리(쯔른 사대, 긴사대, 흥애기, 아웨기, 상사소리), 타작노래(마당질 소리, 도깨질 소리), 보리 홀트는 소리 등이 있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과 1차 산업 의존도의 약화, 과수 재배 등 산업환경의 변

화로 농사기능에 따른 구연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농사요는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제주 민요들은 제주사람, 제주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특수성과 더불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불려졌다. 곧 도민이 공감 할 수 보편적인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 밭밟는 소리 (밭블리는 소리)

밭블리는 작업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밭밟는 소리라고 한다. 좁씨를 뿌리고 난 후 화산회토의 땅에 씨앗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는다. 선소리꾼은 회초리를 들고 말 뒤에 서서 소리를 하며, 후렴 받는 사람들은 뒤에서 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받는다. 이러한 작업은 마치 ‘젓망’처럼 빙 둘러 가면서 밭을 밟도록 말을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노래가 한다.

목장에서 놀던 말들 50두 정도를 마을로 내린 후 그 지경의 밭을 전부 밟는다. 밭을 밟고 난 후는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마가지’ 라고 한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져서 썩이 나기 어렵고, 비록 좁씨가 썩이 나더라도 뿌리내릴 수 없어서 생육이 부진하다.

밤에는 수많은 말을 산간에 올려 새벽녘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하며, 날이 새면 밭을 밟게 된다. 마을에서의 밭블리기는 약 15일 정도 걸린다.

밭블리는 소리는 노동과 직접 연결되어 기능성을 표출하는 사설로 되거나, 짐승과 같이 하는 노동이어서, 노동 진행을 위한 신호이거나 소나 말과 인간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대응, 동물과 인간 서로간의 교감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A 와와러러 와와러러 호호호오어허영 어허량도 하량

B 어허러러러 어러 러러러 어허러러러 요놈의 물덜아 덜렁덜렁 걸으라 호호오 어허어량도 하량

A 워워 러러 어허영 어허어 어허어 어허량도 하량

B 빨랑빨랑(빨리빨리) 걸으라 어호어량도 하량 어호어량도하량

A 요산중에 놀던 물덜아(말들아) 어허어 오닐 하를만 속아(수고하여) 도라(주라)

B 어러러러 어호어 허량도 하량

A 숨난 디(트인 곳) 어시(없이) 뽕아가문(뽕아가면) 핑핑 돌아오라

B 오늘 량 이밭벌곡(농사치고) 내일랑 저밭돌곡 어허량도 하량

A 저산중에 놀던 물덜은(말들은) 오닐 하루는 굶어가는구나

B 어러어러 오로로로로로 빨랑빨랑 걸으라 오로로로 어호 어량도 하량

○ 검질매는 소리-사대

김매는 소리는 민요의 꽃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전개를 보인다. 짝른 사대, 긴사대, 흥애기, 아웨기, 상사소리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이한 명칭인 ‘사대’는 검질 매는 소리의 대표격이라 할 만하다.

사대 소리는 곡에 따라 길게 늘려 부르는 긴사대(느진소리)와 짧게 부르는 짝른사대(자진소리)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긴사대는 짝른사대에 비해, 음을 늘려서 느린 가락으로 부르는 여유 있고 유장한 소리로 선율은 세련되고 우아한 선법적 특징을 지니고있다.

김매는 노래의 사설은 시공적 상황과 일하는 사람들이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일의 현장에서 즐거움과 신명을 다하고 있으며, 제주민의 다양한 삶의 애환이 담긴 정서를 노동 작업과 함께 풀고, 자신의 고단한 삶과 신세한탄, 사랑의 정서를 표현한다.

느진 사대소리 (느린 김매는 소리)

A 어긴여랑 사대로다

B 어긴여랑 사대로고냥

A 검질짓고(김이 무성하여) 골없는(고량이 없이 너른) 밧디(밭에)

B 검질짓고 골없는 밧디

A 검질짓고 굴아진 밧디

B 사대불렁 요검질 매자

B 어허랑 청천 요명에 매자

A 사대불렁 요검질 매자

B 어긴여랑 사대로고 냥

A 나인심이 이 헤 열만하면

B 앞명에랑 헤야 어야 들어나오라

A 오유월 검질을 나혼자 매라

B 뒷명에랑 물러나나라

○ 즈진(빠른)사대 (잣은 김매는 소리)

A 어긴여랑 사대로구나

B 검질짓고 골없는 밧디

A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B 뒷명에야 무너나나라

A 앞명에에 곤아장(예쁜아기) 아장(앉아)

B 뒷명에에 곤아장 아장

A 흔져오렝(빨리 오라고) 손을 친다

B 나 인심이 얼마나 흐민

A 손을친덴 해낮이가지나

- B 오뉴월 검질을 나혼자 매라
- A 어긴여랑 사대로그나
- B 사대불령 요검질매자
- A 어화녕창 방하로구나
- B 어긴여랑 사대로그나
- A 영허야 뒤야로그나
- B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 A 낮사대는 방울방울
- B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 A 즈낙사뉘(저녁에 부르는 소린) 즈직즈직 (빠르게)
- B 우리어멍 날나실적엔
- A 어멍불령 난 말허영(어머니 불러서 나는 그 말을 해서)
- B 요일허렌 날났던가
- A 문늬은데 그말허영 뭇허젠 (늬었는데, 그 말은 해서 무엇하라)
- B 여긴여랑 사대로다
- A 사대불령 요검질매자
- B 어긴여랑 사대로그나
- A 사대불령 요검질매자
- B 사대불령 요검질매자
- A 사대불령 요검질매게
- B 사대불령 요검질매게
- A 검질짓고 골너븐밭디
- B 어긴영창 방하로구나

○ 한림읍 금릉리 장례의식요

장례의식은 사람이 죽어 이별하는 의식이다. 이때 불려지는 노래를 장례의식요라고 한다. 사람이 죽어서 사별을 하는 것은 슬픈 일이나 노래가 있어서 슬프지 않은 않았다고 한다. 장례의례와 관련하여 불려지는 의식요는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긋 파는소리, 꽃염불소리가 있다. 상여를 가름 밖에서 상두꾼들에 의해 장지(葬地)까지 메고 행상하면서 부르는 소리를 행상소리 혹은 상여소리라고 하며, 봉분에 쌓을 흙인 '진토'를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소리, 흙을 쌓은 후 달긋 대로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를 달구질 소리라 한다. 진토긋소리는 땅 파는 일꾼들의 힘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의식요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내용과 인생무상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한다.

마을 주민이 상을 당하면 접군 혹은 골군, 유대군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남정네들이 서로 부조를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

장례의식요는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한번쯤은 해볼 기회를 주며, 인생의 교훈과 삶의 경계(警戒)도 귀 기울이게 한다. 제주 지역의 장례의식요는 지역마다 약간씩 달라지고 있으나, 음악적, 사설적인 면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면서도 지역마다 약간씩은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후렴형식도 달라지고 있다. 상여는 보통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마을 장정들에 의해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을 부인네들이 설배를 메어서 장례행렬의 흥성스러움을 돕는다.

달구질 소리는 ‘달구’라는 도구로 집터를 다지기 위해서 부르거나 혹은 사람이 죽어 봉분을 쌓을 때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곧 이승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와 저승의 집을 짓는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특히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것은 토신을 위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양택 달구질 소리라고 한다. 노래는 집을 지어서 효자와 열려 낱기를 기원하고, 음택 달구질 소리는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가는 심정을 잘 노래하고 있다.

○ 한림읍 금릉리 상여소리

어허녕창 어허노세
어허녕창 어허노세 (후렴, //로 표시)
어허녕창 어허노세//
노세하자 젊어놀아//
늪어지면 못노나니//
어허 노세이요//
하루 살면 기여 나니//
가자가자 어서가자//
불쌍하고도 가련하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하나//
원통하고도 원통하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할랴//
이렇게 할 줄을 누가 아나//
초로인생이 분명하다//
가자가자 어서나 가자//
어느 누가 너를 생각 하fi//
불쌍하고도 칭원하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왔던가//
어머님 전에 사주를 빌고//
어머님 전에 배를 빌어//
칠석님 전에 명을 빌어//

네 다섯은 대장부라//
가자가자 어서 나가자

○ 한림읍 금릉리 달구소리

어허어어 달구
어허어어 달구(후렴//로표시)
어허어 불쌍 달구로다//
좌우사방을 돌아보니//
청룡백호가 분명하다//
이산저산 하고보니//
고은작이 분명하다//
아들자손은 국회의원으로//
외손자손은 면장으로//
이산자손은 번생하라//

○ 명월의 노래

이 노래는 1940년대에 고 오용범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로 당시 향사에 인근 중산간 마을 학생은 물론 동네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시키면서, 고향의 아름다운 풍취와 애郷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불렀다.

당시 6-7세였던 오용순씨는 이 노래를 외어두었다가 정리 채보 한 것이다. 명월에 대한 풍광과 마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볼 수 있다.

우리명월 좋은 데라 녹수청산 푸르고
들에는 어미소가 아에 부르는 노래
동편에 우뚝 솟은 뒤편리는
한라산 서편을 바라보니 바다위에 비양도
북에 높은 백두정기, 남에 뻗어 내린 곳
무궁화 화려한 우리 명월대
산에 오른 기러기는 높은 곳을 모르고
팽나무 녹음 속에 우리 명월대
오라고 부르는 건 푸른 나무 맑은 물
모여라 동무들아 우리 명월대로



<야학당 터>

5. 결어

옹포천의 고향의 강과 관련된 문화적인 콘텐츠는 수량의 풍부함만큼이나 풍성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이곳 주민들에게 구전되는 본향당의 당신화나 월계 진좌수 전설과 민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월계 진좌수와 관련해서 월계 진좌수 한의원을 개설하여 실제적으로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는 의원을 개원하여 이러한 의술관련 전설적인 인물의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월계교 위쪽에 펼쳐진 옹포천 하류지의 부지와 강물을 이용하여 한방 약재를 재배하고 유기농 야채농사를 재배 경작하면서 판매장을 개설하여 생태체험의 교육장을 개장할 필요가 있다.

늘 상 강물의 흐름처럼 하천수로 산책로를 따라 제주민요 특히 농사와 함께 했던 노래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정겨운 분위기로 고향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문화상품화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림읍 금악 본향당 신화를 이용하여 무속신앙의 당(堂) 복원을 통해, 신화의 내용 중 정좌수 딸의 효행 등을 널리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 마련도 가능하다.



<월계교와 월계사>

참고문헌

김태준, 김승호, 『우리역사인물전승』, 서울 : 집문당, 1994.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濟州說話集成)(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서울 : 지식산업사, 1977.

제주도편,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